

목포 유달경기장 이전 신축 재원 마련 고심

실내체육관 궁도장 인근·옥암동 대학부지 2곳 후보지 검토
500억~1000억 소요...목포시·의회 “전남도 차원 추진을”

목포시가 기존의 유달경기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합경기장 신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소 50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유달경기장이 지난 1987년 준공된 이후 30년이 경과해 각종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된 전국 규모 대회 개최가 어렵고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기존 경기장을 철거하고 종합경기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오는 2022년 전국체전 개최로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이 유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종합경기장 신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최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종합경기장 대상 부지로 현재 실내체육관 인근 2곳과 옥암동 대학부지, 목포IC 인근 월산마을, 실내체육

관 저수지 아래 등 5곳이 제시됐다.

이날 용역사는 옥암동 대학부지와 옥암동 월산마을을 최적의 후보지로 꼽았으나 토론 끝에 실내체육관 궁도장 인근(상동산 34번지 일원)과 옥암동 대학부지(옥암동 1382번지 일원)가 최종 검토대상 후보지로 결정됐다.

실내체육관 궁도장 인근은 주변에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수영장, 국제 축구센터 등 체육 관련 시설이 집적화돼 있는 게 장점인 반면 산을 절개해야 하는 등 과도한 토목공사비 소요가 단점이다.

또 옥암동 대학부지는 이미 기반 조성이 돼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나 접근성이 뛰어나고 종합경기장의 사후 활용이 우수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이에 반해 금싸라기 땅 6만6000㎡~10만여㎡를 체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기장 건설시 총 높이의 3분의 1가량이 지하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영산강과 맞닿아 있어 방수와 습기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는 데다가 매립지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서는 관람석 1만5000석 규모의 경기장 신축이 필요하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최소 500억에서 최대 1500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재원마련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목포시는 현재의 유달경기장을 철거하고 이 부지를 2중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뒤 매각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었다.

목포시와 부동산 업체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할 때 용도변경 후 매매가를 3.3㎡당 120만원대로 보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유달경기장 부지 6만7582㎡의 매각대금은 240억원에 달하지만 철거와 폐기를 처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 목포시가 얻을 수 있는 매각대금은 2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최소 규모로 종합경기장을 신축한다 해도 나머지 300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목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 반영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담당 1년 후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있고,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해도 2019년도 예산안에 나 반영이 가능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목포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차라리 전남도 차원에서 종합경기장 신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최홍림 목포시의회의 의원은 “목포 종합경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업 규모를 볼 때 목포시 보다는 전남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성 부지도 꼭 목포시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남악이나 임성 등 무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한 고위 관계자는 “남악·옥암택지 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종합경기장이 반영됐으나 갑자기 사라졌다”며 “목포시가 옥암 대학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전남도에서 경기장을 신축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달경기장 이전 사업 타당성 최종 용역결과는 8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평화광장의 춤추는 바다분수와 함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러브게이트'의 모습.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로

목포시, 전국 공모전 최우수작 '러브게이트' 설치

목포 평화광장에 세계 최초 춤추는 바다분수와 함께 또 하나의 명물이 탄생했다.

목포시는 5일 “지난해 6~8월 전국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13점 중 전문가·시민·학생이 참여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러브게이트(Love Gate)’를 평화광장 원형무대 주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평화광장 일대를 독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전국의 젊은이와 가족 단위 관광객을 타겟으로 체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갯바위~평화의 구름다리 구간 1.2km 구간을 ‘스토리가 있는 연인의 거리’로 지정했다.

‘러브게이트’는 목포 바다를 향한 사랑의 문이라는 컨셉의 하트형 조형물

로 바다분수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촬영해 추억을 SNS에 남김으로써 홍보 효과를 겨냥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평화광장 상가변영외(회장 이재인)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이후 설치한 것으로, 관(官)주도로 이뤄졌던 방식에서 탈피해 자생력확보를 위해 민(民)위주로 추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평화광장 연인의 거리는 러브게이트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SNS를 통해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알릴으로써 목포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효과 노릇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최근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기장 실버 홈을 방문해 노인요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목포시의회 내실있는 타 시·군 벤치마킹 호평

목포시의회가 10대 의회 들어 가장 현실성 있는 비교 견학을 실시해 내실을 기했다는 평가다.

5일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다가온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타 시군 사업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목포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각 삼임위별로 견학을 실시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는 여수시 쌍봉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순천시 SOS 어린이 마을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 실버 홈 등을 차례로 방문해 종합복지관과 어린이 보육시설의 우수 추진사업에 대한 자

료를 수집하고 노인요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또 관광경제위원회는 목포시가 추진 중인 고하도 데크 조성사업과 관련 인천광역시 강화도에 조성된 ‘항산도 해안로 데크’와 ‘아르미에일랜드’ 편익시설 등을 시찰한 데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해 전주시의 역사가 살아있는 한옥마을과 골목시장이인 남포시장을 야간 방문했다.

문경원 기획복지위원장은 “벤치마킹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숲 해설가인 김정심씨와 김재문씨 등이 최근 목포대 평생교육원 강좌 ‘숲과 생명, 들꽃 교실’ 교육과정에 참여해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목포 숲해설가 전남도 경연대회 잇단 수상 두각

목포에서 숲해설가로 활동 중인 김정심씨(55)와 김재문씨(37)가 산림 서비스 분야 전문기능인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 제1회 전남도 숲교육 경연대회(숲해설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근 보성군 제암산에서 실시된 이번 대회는 서류심사를 통과한 20개 팀 중 10개 팀이 본선에 올라 산림교육전문가가 정한 현장 코스에서 실력을 겨뤘다.

심사위원 강성표 박사는 “김정심 씨의 순수·순박한 프로그램과 김재문 씨의 배려와 여유로움이 있는 프로그램이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심 숲 해설가는 “많은 사람이 숲 속의 소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그 속에서 감성과 감동을 하도록 전달하는 따뜻한 숲 해설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문 숲 해설가는 “오롯이 숲에 안기 지 못하는 장애우 등이 있다”면서 “이들이 온전하게 오감을 열고 숲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목포대 평생교육원 ‘숲과 생명, 들꽃 교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들은 현재 신안군과 강진군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 제공 생생한 물가정보 “유익하네”

매주 홈페이지 게재

목포시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장바구니 물가 변동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줘 호평을 받고 있다.

5일 목포시에 따르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 매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품목별 가격 동향을 파악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 시는 매일 물가정보지와 함께 상수도료·하수도료·쓰레기 봉투요금·정화조 청소요금·공연 관람료 등 5종의 지방공공요금 현황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고지해 주고 있다.

현재 시 홈페이지 ‘물가정보’코너에는 쌀·콩·무·배추 등 농수축산물 41개

품목을 비롯해 설렁탕·갈비탕·냉면 등 개인서비스 요금 50개 품목, 두부·라면·우유·휘발유·학원비 등 각종 공산품 가격 26종에 대한 가격이 매주마다 상세하게 제공된다.

이와 함께 목포시 관내 주유소 중 최저가가 TOP 5 업소와 품목별 가격을 제공해 시민들이 싼 주유소를 찾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또 시는 매년 착한가격 업소 실태조사를 벌여 30개 업체를 지정해 매월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24개 착한업소가 지정돼 품목별 가격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지리산 온천지구내 K호텔

**깨끗하게 새단장 했습니다!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숙박문의 H. 010-3605-5000
061-783-8090

대형모텔 매매·동업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2평 건물 718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6월10일 오픈예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4억 5천만원 (조정가능)
동업 - 협의 (경험자우대)
- 용자 8억 포함, 법인체 인수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